



바른답·알찬풀이

중등 국어 2-2





1 함께 보아요

01 함께 읽고 감상하기

단원 맛보기

8쪽

1 (1) ○ (2) × 2 ④ 3 갈래 바꾸기 4 원작, 비판적

- 2 원작의 인물과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면 원작 자체를 알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재구성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창작이다.
- 3 <보기>는 원작인 소설 <토끼전>을 희곡으로 재구성한 것이므로 갈래 바꾸기에 해당한다.

핵심 속삭

P. 9 가난, 도움, 부자 / 가족, 스스로, 재산, 미움
 P. 10 체면, 바가지 장수
 P. 11 바가지, 흥부 표 / 반성, 용서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9~11쪽

1 ⑤ 2 ③ 3 ③ 4 바가지 장수 5 ⑤ 6 ③ 7 ②, ④ 8 놀부: ㉠, ㉡ / 흥부: ㉢, ㉣

- 1 흥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다 써 버려서 가난해진 것이다.
- 2 놀부는 흥부가 알미워서가 아니라 흥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모질게 대한 것이다.
- 3 품삯을 받고 일할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이 있어도 양반 체면에 남의 집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 4 (다)에서 바가지 장수는 흥부에게 바가지를 만들어 팔라고 말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5 흥부는 집에 심은 박을 전부 타서 열심히 바가지를 만들었고, '흥부 표' 바가지가 온 나라에 유명해져서 큰 부자가 되었다.
- 6 흥부는 자신이 바가지 장수에게 팔았던 바가지가 놀부네 곳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자신을 위하는 놀부의 마음을 알게 된다.
- 7 흥부는 자신이 자립할 수 있게 몰래 도와준 놀부의 마음을 알게 되어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놀부를 원망했던 것이 미안했을 것이다.
- 8 이 글에서 놀부는 지혜로우며 흥부를 배려할 줄 아는 인물

이고, 흥부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놀부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핵심 속삭

P. 12 흥부, 유산 / 품, 죽는 것
 P. 13 분수, 향의 / 재물, 벌, 재물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12~13쪽

1 ③ 2 ④ 3 ④ 4 ⑤

- 1 놀부는 동생인 흥부를 미워하고 못되게 굴지만 마음이 착한 흥부는 그런 놀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2 ④만 흥부가 한 일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흥부 아내가 한 일이다.
- 3 흥부가 일을 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부가 욕심이 많고 정이 없어서 도와주기 싫은 것이다.
- 4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놀부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흥부는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해와 탐구

14~16쪽

- 1 (1) 성실, 욕심 / 의지, 배려 (2) 재산, 성공, 부자 / 냉정, 바가지, 성공 (3) 나쁜, 의존, 가치 2 (1) 다리, 박씨, 재물 / 박, 바가지, 곳간 (2) 박, 비현실적, 바가지, 현실적 (3) 노력, 성공, 자신, 힘, 노력, 배려 3 (1) 길다, 운율, 과거 / 짧다, 운율, 쉽게 (2) 대중, 고전, 어린이, 동화 4 우애, 착한, 복, 벌, 행복

문제 해결과 적용

17~18쪽

- 1 (1) 서정적, 사랑, 소년, 슬프게 (2) 소나기, 별 (3) 운율 (4) 소녀, 꽃 모자, 소년, 자연, 순수한 사랑

! 학습 활동 응용

14~18쪽

- 01 ④ 02 ③ 03 너그럽다(인자하다) 04 ① 05 ⑤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예쁜 꽃 모자 13 ㉠: 소망함, ㉢: 설렘, ㉣: 슬퍼함 14 ⑤ 15 ③ 16 ① 17 ④

- 01 <놀부전>은 고전 소설인 <흥부전>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구성한 동화이다.
- 02 <놀부전>의 흥부는 속이 좁고 자립심이 없기는 하지만 일부러 남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는 심술궂은 인물은 아니다.

- 03** <보기>에서 놀부는 자신을 원망했던 동생이 사과하자 기꺼이 용서해 주고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 04** <놀부전>에서 작가는 놀부를 동생을 배려해 주는 인물로 설정하여 마음이 따뜻하며 지혜로운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 05** <놀부전>에서 흥부는 바가지 장수로 나서 바가지를 팔았다. 바가지 장수가 흥부에게 바가지를 계속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6** <흥부전>에서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난 박에서 나온 재물로 부자가 되는데, 이는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설정이다.
- 07** <놀부전>에서 흥부는 부자가 된 이후에 자신을 배려했던 놀부의 뜻을 깨닫고 두 사람의 우애가 더욱 깊어졌으므로 ④의 내용은 창작 의도와 관련이 없다.
- 08** (가)는 말로 전승되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기보다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많다.
- 09** 재구성된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장이 짧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체는 예상 독자와 글의 종류, 주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0** 형제간의 우애를 소재로 한 작품은 <흥부전> 외에도 많다.
- 11**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제시된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를 통해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2** 소년은 소녀를 생각하며 풀잎새와 예쁜 꽃송이로 예쁜 꽃 모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꽃 모자에는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이 담겨 있다.
- 13** 소년은 소녀에게 띄워 주고 싶어 꽃 모자를 만들었으며, 소녀가 오길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기다리던 소녀가 오지 않자 슬퍼하며 꽃 모자를 냇물에 떠 내려 보냈다.
- 14** 이 노래는 무겁고 엄숙하기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따뜻한 이 느껴지는 분위기이다.
- 15** 소설과 노래 모두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 16** 소녀는 소년에게 소개 이름을 묻거나 함께 산 너머에 가 보기를 제안하며 관심을 표현할 뿐 소년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 17** 소설에서는 제시된 상황과 대화를 통해 소년과 소녀의 심리를 둘 다 추측할 수 있는데, 노래에서는 소년의 관점과 심리만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소단원 마무리

19쪽

글의 개관 <놀부전>: 동화, 판소리, 동화, 긍정적, 부정적, 자립심 / <흥부전>: 판소리, 부정적, 복

글의 짜임 <놀부전>: 놀부, 바가지, 배려 / <흥부전>: 유산, 도움, 제비, 부자, 놀부

흥부의 처지와 태도 비교 <놀부전>: 유산, 양반 / <흥부전>: 놀부, 생계
흥부와 놀부의 현대적 재평가 [흥부]: 약자, 무능력 / [놀부]: 지배층, 적극적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20~22쪽

- 01 ③ 02 ① 03 ⑤ 04** 흥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놀부에게 의존하려고만 해서 놀부는 흥부를 쫓아낸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의존하려고만 하는 흥부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05 ⑤ 06 ③ 07** <흥부전>의 흥부는 성실하고 독립적인 인물이지만, <보기>의 흥부는 무능하고 의존적인 인물이다. **08 ⑤ 09 ② 10** (다)와 달리 (라)에서는 소년의 처지에서만 소녀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④**
- 01** 이 글은 고전 소설 <흥부전>을 재구성하였으나 주인공은 원작의 인물인 흥부와 놀부를 그대로 가져왔다.
- 02**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지 않기로 한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흥부를 도와주는 것이 흥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 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이다.
- 03** 놀부는 흥부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바가지 장수를 시켜 흥부에게 바가지를 사 오도록 한 것이다.
- 04** 놀부가 흥부를 쫓아낸 것은 자신에게 의존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 나가려는 흥부의 태도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런 흥부를 비판함으로써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 주고 싶었을 것이다.
- 05** 놀부는 흥부에게 곡식을 나눠 주기 싫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 06** 흥부는 가난하게 살다가 박에서 나온 재물로 인해 부자가 되었지만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니다.
- 07** 원작 <흥부전>에서 흥부는 착하고 성실한 인물이지만, 이를 재구성한 <놀부전>에서 흥부는 능력이 없어 놀부에게 의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08** 작가는 (가)를 (나)로 재구성하면서 제목과 인물의 성격, 문장 표현을 변화시켰고 판소리계 소설을 동화로 바꾸었지만 작품의 배경은 바꾸지 않았다.



- 09 원작인 (가)를 재구성한 (나)는 작가의 새로운 상상과 관점에 따라 내용이나 표현, 형식, 맥락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는지 살펴보며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다)에서 소년과 소녀의 정서가 모두 드러나는 것과 달리, (라)에서는 소년의 입장에서 소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11 (다)에서는 소년과 소녀의 대화와 행동만 서술될 뿐 인물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라)에서는 소녀는 등장하지 않고 소녀를 기다리며 설레는 소년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02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단원 맛보기

23쪽

- 1 (1) ○ (2) × 2 (1) 소 (2) 영 (3) 영 3 ㉠-㉡-㉢-㉣-㉤-㉥
4 ㉡

- 4 소설을 영화로 재구성할 때는 인물이 처한 상황은 상세한 서술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핵심 속삭

- P. 24 집세, 사례금 / 율리
P. 25 잘못, 무거워짐
P. 26 고백, 배신감, 충격
P. 28 율리, 양심, 부끄러움 / 용서, 용서, 안도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24~28쪽

- 1 ④ 2 자신이 율리를 흠친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3 무거워졌으며, 시멘트 벽돌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 1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조지나의 아빠는 세 개의 동전 문치와 1달러짜리만 가득 든 마요네즈 통을 남긴 채 소식이 없다고 하였다.
- 2 조지나는 자신이 율리를 흠쳤다가 원래대로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것을 카멜라 아줌마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지 않으려고 주변을 살살이 살핀 것이다.

- 3 조지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멀어질수록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진 것이다.
- 4 율리를 데려다 놓고 돌아가던 조지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 5 카멜라 아줌마는 율리가 돌아와서 매우 행복해하던 중에 자신의 집에 방문한 조지나를 반가워하고 있다.
- 6 ‘놀라움’은 조지나의 고백을 들은 카멜라 아줌마의 마음이다.
- 7 율리를 흠친 것이 자신이라는 조지나의 고백을 들은 카멜라 아줌마는 놀라고, 화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 8 ㉠은 독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사건의 핵심만 간략하게 제시하여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지루하지 않게 서술한 것이다.
- 9 카멜라 아줌마는 개를 흠친 이유에 대해 조지나의 설명을 들은 후 조지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조지나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10 ㉠은 카멜라 아줌마가 조지나를 이해하고 용서했음을 알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은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 11 조지나는 잘못을 고백한 후에 카멜라 아줌마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괴로웠으나 내일 토비와 같이 놀러 오라는 아줌마의 말을 듣고 몸이 가볍게 등실 떠오르는 것 같이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 12 ㉠, ㉡, ㉣, ㉤는 조지나와 카멜라 아줌마 사이의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는 토비가 자신이 한 일을 알면 화를 내겠지만 카멜라 아줌마가 용서해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덜 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해와 탐구

29~31쪽

- 1 (1) 율리, 흠쳤다, 나쁘다, 무거운, 알겠다 (2) 비난, 안심, 이해, 따듯한 (3) 용기, 이해 (4) 정직, 솔직, 용기 2 (1) 우리나라, 조지나, 손, 산책, 화려 (2) 글, 영상, 배경 음악, 표정 연기, 감각적, 카메라 (3) 시각적, 영상미, 분위기 3 상상, 인터뷰, 뉴스, 자신, 회상, 만화, 재조명

! 학습 활동 응용

29~36쪽

- 01 ㉢ 02 ㉡ 03 ㉢ 04 용서, 갈등 05 ㉢ 06 ㉠,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책꽂이 안쪽 24 클로즈업 샷 25 ㉠ 26 ㉡
27 ㉠-㉡-㉢-㉣-㉤ 28 ㉠ 29 ㉣ 30 ㉢

- 01 조지나는 윌리를 놓아준 뒤에 그냥 갈지, 카멜라 아줌마에게 사실을 고백할지를 두고 내적으로 갈등하였다.
- 02 조지나는 윌리를 돌려보내고 돌아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카멜라 아줌마에게로 돌아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 03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에게 내일 토비와 같이 놀러 와서 윌리를 산책시켜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조지나의 잘못을 용서했음을 드러낸다.
- 04 내일 놀러 오라는 카멜라 아줌마의 말에 조지나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안도와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서 두 사람의 외적 갈등이 해소된다.
- 05 내일 놀러 오라는 카멜라 아줌마의 말을 듣는 순간 조지나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털어 내게 된다.
- 06 이 글의 작가는 조지나를 통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용기가 중요함을, 카멜라 아줌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 주는 넓은 마음의 가치를 말하고자 하였다.
- 07 집세가 없어 차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조지나의 처지를 생각할 때 ①은 적절하지 않다.
- 08 소설에서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의 손을 잡아 주면서 이야기하지만, 영화에서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09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설과 영화에 대한 설명이 반대다.
- 10 재구성한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원작과 관련되므로 ③과 같은 가치를 갖기는 어렵다.
- 11 조지나의 아빠는 세 개의 동전 문치와 1달러짜리만 가득 든 마요네즈 통을 남긴 채 식사가 없다는 내용만 제시되었을 뿐, 이 소설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중심 사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조지나 아빠의 삶을 상상하여 쓰는 것은 이 소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12 영상 제작 계획서 쓰기는 전체적인 재구성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 13 영상 제작 계획서는 재구성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대본은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 14 소설의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소설 속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여 재구성하였다.
- 15 영상 제작 계획서의 재구성 의도를 살펴보면, 조지나가 어린 시절의 일을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카멜라 아줌마의 개를 훔쳤던 사건이 조지나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6 촬영 기법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정리한다.
- 17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지만, 영상 대본은 인물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 18 영상 대본의 '장면 2'에서는 소설의 주요 대사를 간추려서 제시하여 소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고, '장면 3'은 소설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 19 지연이네 모듬이 쓴 영상 대본의 '장면 1'과 '장면 3'에서 지시문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면 스토리보드대로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스토리보드는 효율적인 촬영을 위해 미리 구상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촬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 21 영상 제작 시 모듬원이 맡은 역할은 영상 제작 계획서에 쓴다. 스토리보드에 맡은 역할까지 적지는 않는다.
- 22 스토리보드는 영상 대본을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실제로 어떤 장면을 촬영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촬영 방법까지 생각하게 되므로 촬영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23 이 장면의 경우 수첩을 찾는 조지나의 모습을 잘 보여 주기 위해서는 책꽂이 안쪽에서 카메라로 찍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24 클로즈업 쏘은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이 화면에 가득 차게 촬영하는 기법으로, 인물의 심리를 강조할 수 있고, 특정 사물을 자세하게 보여 줄 수 있다.
- 25 장면의 생략이나 축소는 영상의 전체 흐름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 26 촬영한 순서대로 영상을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상을 이어 붙여야 한다.
- 27 소설을 영상으로 만들 때는 '영상 제작 계획서 쓰기 - 영상 대본 쓰기 -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촬영하기 - 편집하기' 순서로 제작한다.
- 28 원작은 원작대로 가치가 있고 재구성한 영상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작보다 훌륭한 점을 찾는 것은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29 재구성한 작품과 재구성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영상을 본 후 원작의 아쉬운 점은 평가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30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조지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탐구리

37쪽

글의 개관 성장, 용기, 관용, 1인칭 주인공, 내적, 긍정적
 글의 짜임 차, 집세, 카멜라 아줌마, 잘못, 용서
 조지나의 내적 갈등 율리, 용서, 고백
 서술 방법의 효과 소재 / 상상, 주제적
 조지나의 발걸음으로 표현된 심리 용서, 죄책감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38~41쪽

01 ⑤ 02 ④ 03 ③, ⑤ 04 ④ 05 ④ 06 ① 07 카멜라 아줌마는 율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서 조지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나는 반드시 잘못을 고백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과 같이 큰 목소리로 아줌마를 부른 것이다. 08 ③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① 16 자신이 카멜라 아줌마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01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조지나)'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02 조지나는 자신이 율리를 훔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율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하는 것이다.
- 03 ㉠에서 조지나는 율리를 돌려주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고 싶은 마음과 율리를 훔친 일을 카멜라 아줌마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①, ②, ④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이며, ③, ⑤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다.
- 04 조지나는 개를 훔쳤다는 죄책감과 카멜라 아줌마에 대한 미안함에 잘못을 고백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은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 조지나의 마음을 의미한다.
- 05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라는 카멜라 아줌마의 말에서 그녀는 율리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6 ㉢은 카멜라 아줌마의 심리를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행동이나 표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7 조지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용기 내어 카멜라 아줌마를 찾아온 것이다.
- 08 조지나로부터 율리(개)를 훔친 것이 자신이라는 고백을 들은 카멜라 아줌마가 할 말을 잃은 채 거칠게 숨만 쉬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09 ㉣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요 소

재를 중심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10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의 딱한 처지를 이해해 주지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는 침착하고 단호한 사람이다.
- 11 조지나가 우는 이유는 개를 훔쳤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부끄러움, 카멜라 아줌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조지나가 자신이 한 일이 엄마에게 알려지는 것을 불안해하는지는 알 수 없다.
- 12 카멜라 아줌마가 조지나를 바로 달래 주지 않은 것은 조지나를 바로 용서해 주기보다 조지나가 충분히 괴로워할 시간을 주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13 소설을 영화로 재구성할 수도 있고, 영화를 소설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 14 (가)에서 카멜라 아줌마가 부르기 전까지 조지나는 괴로운 상태였다. 그러다가 카멜라 아줌마로부터 놀려 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조지나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함을 느꼈고, 이후 잘못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 15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보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재구성 의도에 맞게 각 장면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정하고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작의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16 카멜라 아줌마에게 용서받기 전에 조지나는 무척 괴롭고 답답했으나, 용서를 받은 뒤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용이 탄탄해지는 소단원 문재

42~47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③ 08 형제간에 사이좋게(우애롭게) 지내야 한다. 09 ① 10 ① 11 ② 12 (다)는 원작과 달리 소년의 처지에서만 소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3 ③ 14 ⑤ 15 ① 16 ㉠: 무거움(답답함, 죄책감 등), ㉡: 긴장됨(두려움, 조마조마함 등) 17 ③ 18 ③ 19 ④ 20 이 소설의 작가는 ‘조지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카멜라 아줌마’를 통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해 주는 너그러운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21 ② 22 ③ 23 ‘장면 3’에서는 원작에 없는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추가하였다. 24 ②

- 01** (가)의 놀부는 자신에게 의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치고자 도와 달라는 흥부의 청을 거절하고 있고, (나)의 놀부는 부모님의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에 한 톨도 주지 않고 흥부를 내쫓는다.
- 02** (가)에서 흥부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놀부의 횡포 때문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고 스스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 03** (나)는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가 갖는 구어적이고 음악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 04** (가)의 놀부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꾸 도와주니까 의지만 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구려.”라고 말한 것을 통해 그가 흥부에게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05** (가)에서 흥부는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의지로 열심히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서 부자가 된다. 그러나 (나)에서 흥부는 제비의 도움을 받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
- 06** [A]에서 흥부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일을 하는 것은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라며 주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흥부는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7** 놀부의 계획은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흥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 08** <놀부전>과 <흥부전>은 과정은 달랐지만 결국 놀부와 흥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끝난다. 이를 통해 두 작품 모두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9** 원작은 원작대로, 재구성된 작품은 재구성된 작품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작이 재구성된 작품보다 더 우수하다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가)의 놀부는 가난한 사람은 못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 같은 생각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11** 놀부는 곡식이 많으면서도 흥부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흥부를 마구 때리는 것으로 보아 심술궂은 성격이고, 흥부는 그저 맞기만 하는 것으로 보아 순종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12** 원작에서는 소년과 소녀의 행동이나 표정, 대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데 반해 (다)에서는 소년의 심리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13**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14** 내적 갈등을 겪던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힘들게 털어놓는다.
- 15** ㉠은 자신이 월리를 훔친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돌아가려는 조지나의 무거운 마음을 의미한다.
- 16** 조지나는 월리를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결국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다시 가지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부담에 긴장감을 느낀다.
- 17**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둘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아줌마가 조지나를 용서하며 갈등이 해소되었으므로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달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 18** [A]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고 중요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한 부분으로, 독자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내용을 상상하여 떠올리게 할 수 있다.
- 19** ㉡에서는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내일 놀러 오라는 말을 들은 후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알 수 있다.
- 21** (가)는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영상 제작 계획서 쓰기’ 과정으로, 세부적인 재구성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영상 대본 쓰기에서 하면 된다.
- 22** (나)는 ‘영상 대본 쓰기’ 과정으로, 영상 제작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설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대본을 작성하면 된다. 따라서 소설에 없는 내용도 영상 대본에 포함할 수 있다.
- 23** 작품을 재구성할 때는 원작에 없는 내용이라든가 재구성 의도에 맞게 상상하여 추가할 수 있다.
- 24** ㉠과 ㉡은 공통적으로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이 가득 차게 촬영하는 클로즈업 샷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효과적인 의사소통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단원 맛보기

50쪽

1 (1) ○ (2) × 2 ② 3 상황, 사회 · 문화적 4 ③

- 2 질문은 담화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 3 상황 맥락은 담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사회 · 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주고받는 말이나 글은 담화의 구성 요소 중 '내용'에 해당한다. '맥락'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 공간적인 상황, 그들이 속한 사회 · 문화적인 배경 등을 포함한다.

핵심 콕콕

P. 51 문장, 담화, 내용, 맥락

! 학습 활동 응용

51~60쪽

01 ⑤ 02 ③ 03 맥락 04 ② 05 L 06 ③, ④ 07 ②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① 14 ④ 15 ⑤
 16 ① 17 ② 18 ⑤ 19 의미 20 ④ 21 ① 22 ② 23 의
 도, 의미 24 ⑤ 25 ① 26 자신과 지훈 27 ③ 28 ⑤ 29 ③
 30 ④ 31 ① 32 ④ 33 ③ 34 ④ 35 ① 36 ⑤ 37 ⑤

- 01 머릿속의 생각이 문장 단위로 나타난 것은 '발화'이다.
- 02 <보기>의 담화는 교실에서 만난 지훈이와 민지가 아침 인사를 하는 상황이다.
- 03 맥락이란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을 말한다. 맥락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할 때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 04 이 안내문을 쓴 사람은 달빛 도서관 담당자이다.
- 05 안내문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하였으므로 달빛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원봉사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L'이다.
- 06 안내문에 따르면 도서관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서고 정리, 열람실 청소,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 등의 일을 한다.
- 07 이 안내문은 전달 매체가 문자인 문어 담화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담화는 ②의 경고문이다.

- 08 지훈이는 봉사 활동을 예약하기 위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달빛 도서관에 들렀고, 도서관 담당자와 함께 봉사 활동을 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다.
- 09 이 담화는 말로 주고받는 구어 담화로, '글쓴이'는 글로 주고받는 담화의 구성 요소이다.
- 10 이 담화를 통해 봉사 활동을 지원한 사람(지훈)과 봉사 활동을 할 장소, 날짜, 시간 등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봉사 활동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11 도서관 1층 열람실은 지훈이가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할 장소일 뿐 봉사 활동을 신청하는 장소인지는 알 수 없다.
- 12 (가)는 미용실에서 새로 한 머리 모양이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이다.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 가려면 미용실이라는 장소와 머리를 하러 왔다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13 (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괜찮아.'라는 남학생의 말은 '좋아. 잘 어울려.'라는 의미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 14 (나)는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권하는 상황이다. 음식을 충분히 먹고 식사를 마친 여학생에게 아직 음식이 남은 남학생이 자신의 음식을 권하고 있다.
- 15 (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괜찮아.'라는 여학생의 말은 '배가 부르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이다.
- 16 '괜찮아.'라는 말이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된 것은 (가)와 (나)에서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 17 (4)는 남학생이 길에서 넘어진 여학생에게 다치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는 상황으로, 이때 여학생이 '괜찮아.'라고 말한 것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이다.
- 18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대화를 하는 목적과 주제, 대화 참여자가 처한 상황 등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⑤는 사회 · 문화적 맥락이다.
- 19 같은 담화라도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하며 의사소통해야 한다.
- 20 이 대화에서 시간이 있냐는 남학생의 질문에 예빈이가 '응, 있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예빈이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 21 남학생이 ㉠처럼 말한 이유는 책 옮기는 것을 예빈이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 22 남학생은 시간이 있으면 책을 함께 옮겨 달라는 의도로 예빈이에게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므로 도와주겠다고 나 책을 같이 옮겨 주겠다는 대답이 적절하다.

- 23 담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담화도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4 외국인인 로버트는 '우리 엄마'라는 지훈이의 말을 '자신과 지훈의 엄마'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당황하고 있다.
- 25 이 장면에서 지훈이 말한 '우리 엄마'는 '자신의 엄마'를 의미하는 것이다.
- 26 우리말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집처럼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 27 이 장면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 '우리 엄마'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친구와 대화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 28 할머니는 '복스럽다'를 '모난 데가 없이 복이 있어 보여 보기 좋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 29 민지가 '복스럽게도 생겼다.'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싫은 표정을 지은 것은 '복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를 '(얼굴이나 몸매가) 뚱뚱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 30 이 대화에서는 '복스럽다'라는 말을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세대에 따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
- 31 '노약자석 앞'이라는 (가)의 상황에서 '배려'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32 '도서관 열람실 안'이라는 (나)의 상황에서 '배려'는 '도서관 안에서 떠들거나 소음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라는 의미므로 '조용하고 엄숙함.'이란 뜻의 '정숙'이 적절하다.
- 33 (가)~(다)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배려'라는 말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가)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나)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조용히 하자.', (다)는 주차장에서 '장애인 구역에 주차 공간을 비워 두자.'라는 의미이다.
- 34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전화로 다투는 담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불편함만 호소하고 있다.
- 35 이 담화의 주된 내용은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이다. 담화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각자 자신의 주장만 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36 '나'는 위층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야 위층 사람이 휠체

어를 타고 생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것이다.

- 37 대화할 때 맥락을 고려하여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해와 탐구

52~58쪽

1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담당자, 자원봉사자, 점심, 복도

2 지훈이, 담당자, 날짜, 예약, 방과 후, 달빛 도서관

2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1 (1) ㉠: 미용실, 머리, ㉡: 식당 (2) ㉠: 어울려, ㉡: 부족
(3) 상황 (4) 관찮아, 관찮아, 걱정

2 (1) 시간, 책 (2) 도와줄게, 책

3 (1) 우리 엄마 (2) 지훈, 우리, 자신, 나 (3) 문화, 이해, 문화

4 (1) 복스럽다 (2) 복, 뚱뚱하다 (3) 세대, 상대

문제 해결과 적용

52~60쪽

1 (1) ㉠: 노약자, ㉡: 소음, ㉢: 장애인, 주차 공간 (2) 장소, 의미

2 (1) 아래층, 위층, 소리, 향의, 층간 소음, 전화 (2) 주장, 처지
(3) 휠체어, 소음 (4) 의사소통, 오해



소단원 갈무리

61쪽

발화와 담화의 뜻 문장, 발화

담화의 구성 요소 글, 말, 처지, 상황

맥락의 뜻과 필요성 배경, 의사소통

맥락의 종류와 특징 처지, 시간적, 상황 맥락, 직접적 / 역사적, 간접적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62~65쪽

01 ㉠ 02 ㉠ 03 ㉠ 04 ㉠: 맥락, ㉡: 내용, ㉢: 읽는 이 05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고, 반가움이나 친근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으며, 교실에서 아침 인사를 하는 상황인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06 ㉠ 07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08 ㉠ 09 ㉠ 10 담화의 주된 내용은 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예약하는 것이다. 11 ㉠ 12 ㉠ 13 ㉠ 14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 ㉠은 '자신(지훈)의 엄마'를 의미하고, ㉡은 '자신(로버트)과 지훈의 엄마'를 의미한다. 16 ㉠ 17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8 ㉠ 19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 01 환자인 '나라'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병원이라는 점과 진료 중이라는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몸 상태를 진단하려는 의사의 질문에 엉뚱하게 답하고 있다.
- 02 이 글에서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전하는 내용,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인 맥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03 ②의 연설은 전달 매체가 말인 담화이고, 나머지는 글로 주고받는 담화이다.
- 04 ㉠에는 담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인 '맥락'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담화를 통해 주고받는 '내용'이, ㉢은 '읽는 이'가 들어가야 한다.
- 05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내용, 맥락이다. <보기>의 대화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담화라고 할 수 있다.
- 06 이 담화는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따라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달빛 도서관 담당자이다.
- 07 (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달빛 도서관에서 도서관 서고 정리, 열람실 청소,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 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이다.
- 08 달빛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려면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 책을 모두 읽어 보아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 09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달빛 도서관에 들렀다고 하였으므로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방과 후이다.
- 10 지훈이는 도서관 담당자에게 자신이 할 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문의하며 봉사 활동을 예약하고 있다.
- 11 ㉠은 음식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사양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지만, ㉡은 바뀐 머리 모양이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것이므로 '사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12 (가)~(다)를 통해 '괜찮아.'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13 ㉠은 예빈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책을 함께 옮겨 달라는 의미를 전하려는 것이다.
- 14 담화의 의미가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해야 한다.
- 15 지훈이는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는데, 외국인인 로버트는 '우리'를 '지훈과 자신'이라고 이해하였다.

- 16 (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지훈과 '지훈과 자신'이라고 이해한 로버트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담화에 참여하는 이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이 점을 고려해야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17 (나)에서는 '복스럽다'라는 표현을 할머니와 민지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18 두 사람이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처지를 알지 못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 19 (라)에서 아래층 사람은 위층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준비했던 슬리퍼를 감추며 부끄러워한다.

02 의미를 나누는 대화

단원 맛보기

66쪽

1 (1) × (2) ○ (3) ○ 2 의미, 공유 3 ⑤

- 2 한희가 문 선생님과 대화하며 생각이 변화한 것을 통해, 듣기·말하기가 상대방과 함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3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어야 한다.

핵심 속독

P. 67 달걀, 수학여행 / 암탉
P. 69 도시, 달걀, 달걀
P. 70 도시, 두메
P. 72 문명, 동물원 / 폭포, 밤하늘
P. 73 두메 / 도시, 두메, 가치

67~73쪽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1 ④ 2 까닭, 들어 3 ① 4 ⑤ 5 ㄷ 6 ① 7 반응, 공유
8 ⑤ 9 ③ 10 도시는 문명이 있어서 두메보다 우수하다. 11 ⑤
12 ① 13 ④ 14 자연, 달걀 15 ⑤ 16 ② 17 ④

- 1 문 선생님이 한뢰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다고 하였으므로 답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고개이다.
- 2 문 선생님은 한뢰의 생각을 꾸짖지 않고 그 까닭을 묻은 뒤에 한뢰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 3 한뢰의 말을 들은 문 선생님은 자신이 한뢰의 마음을 몰라 주었던 것이 미안했을 것이다.
- 4 달걀은 한뢰에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울고 싶었던 것이다.
- 5 한뢰는 달걀을 업신여긴 도시 사람들에게 양갓음을 하고 싶어 할 뿐, 달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 6 (마)에서는 한뢰가 도시 사람들에게 양갓음할 방법을 이야기하였고, 문 선생님은 달걀은 달걀로 갚으라고 하였으므로 그 방법에 대화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 7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듣기 태도로,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 의미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 8 한뢰는 문 선생님이 달걀을 모아 여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이 도시에서 당한 것을 동생에게 똑같이 겪게 하려고 한다고 여기고 선생님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것이다.
- 9 ㉔(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은 도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달걀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모두 두메에서 값어치 있게 쓰이는 소중한 달걀을 가리킨다.
- 10 한뢰는 도시 아이들에게 '시골뜨기'라고 취급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도시는 문명이 있기 때문에 두메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11 ㉔(선녀 폭포)은 두메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자연이지만, 나머지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12 문 선생님은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13 우리 속에 간혀 있는 도시의 동물들과 달리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두메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14 문 선생님은 두메의 아이들이 달걀을 통해 도시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15 문 선생님은 한뢰의 말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며 한뢰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다.

- 16 한뢰는 문 선생님과 대화 끝에 문 선생님의 생각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두메는 두메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각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17 이 소설에서 한뢰와 문 선생님이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대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누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대화의 가치는 아니다.

이해와 탐구

74~78쪽

- 1 도시로 여행 가는 것, 웃음거리, 두메, 자연, 문 선생님의 생각
 2 (1) 달걀, 웃음거리/달걀, 달걀/도시, 초청, 두메산골, 달걀/자연, 자연, 무식쟁이, 자연, 가슴 (2) 도시, 두메, 달걀, 달걀, 도시 3 (1) 취향/적극적, 협력적/구체적/의도, 대답 (2) 마음, 해결책, 일치 4 (1) 얼굴, 얼굴 (2) 두메/도시대로, 두메대로 (3) 협력적, 공유 (4) 이해/대안

! 학습 활동 응용

74~78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② 06 자신에게 소중한 달걀을 도시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했기 때문이다. 07 ① 08 ③ 09 ② 10 ④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① 16 ③ 17 ②
- 01 문 선생님은 한뢰에게 도시는 도시대로, 두메는 두메대로 가치가 있음을 알려 준다.
 - 02 한뢰가 봄뢰의 암탉을 빼앗은 것은 봄뢰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는 봄뢰가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처럼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 03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이끌어 낸 결론은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해서 두메의 자연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 04 한뢰와 문 선생님은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주고, 협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5 한뢰는 봄뢰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여행 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6 한뢰는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해서 양갓음을 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 07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여 보여 줄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다. ①의 가로등은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인 조명이다.



- 08** 문 선생님은 도시에 있는 공원, 분수는 자연을 흉내 낸 것일 뿐, 도시 아이들이 진짜 자연을 보면 더 신기해할 것이라고 말하며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 줌으로써 그 가치를 알려 주고자 하였다.
- 09** 문 선생님이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려는 것은 도시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을 직접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 10** 문 선생님과 대화한 후에 한씨는 도시 아이들을 불러서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자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아이들을 업신여겨 주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 11**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 12** 문 선생님은 한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 13** 한씨와 문 선생님은 대화를 통해 두메의 진짜 자연을 보여 주기 위해 달걀을 판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기로 하였다.
- 14** 이 소설에서 한씨와 문 선생님은 대화를 통해 봄씨의 암탉을 죽이려고 했던 한씨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관해 서로 달랐던 생각을 하나로 모으게 되었다.
- 15**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도시는 도시대로, 두메는 두메대로 각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 16** 듣기와 말하기는 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 17** 대화에 참여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흘려듣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글의 개관 두메산골, 가치

글의 짜임 암탉, 양값음, 문명

이 소설 속 담화의 구성 요소 한씨 / 맥락, 고개 / 봄씨, 도시

한씨가 생각하는 '달걀'의 의미 여행비 / 웃음거리

한씨의 생각 변화 도시, 두메 / 도시, 두메

이 소설에서 알 수 있는 '대화'의 의미와 가치 생각, 존경 / 공유, 발전

79쪽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80~83쪽

- 01** ②, ③ **02** 문 선생님은 한씨의 생각을 꾸짖지 않고, 이유를 들어 주고 있다. **03** ⑤ **04** 맥락 **05** ③ **06** ① **07** ③ **08**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09** ④ **10** ① **11** ③ **12** ① **13** ③ **14** 도시는 도시대로 두메는 두메대로 가치가 있다. 달걀을 팔아 모은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자.
- 01** 일요일은 문 선생님이 한씨에게 통닭을 먹으러 가자고 한 날일 뿐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이 아니다. 또한 이 글은 끝없는 이가 실제 경험한 일을 그대로 적은 수필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 창작한 소설이다.
- 02** 문 선생님은 한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궁금한 내용을 묻고, 이어질 말을 기다리며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하고 있다.
- 03** 한씨는 도시 여행 중에 텔레비전 쇼에서 본 달걀을 백서른 개나 먹는 아저씨의 모습과 그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도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 사람들이 달걀과, 그 달걀을 소중한 여겼던 자신까지도 업신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 04** 빈칸에 들어갈 담화의 구성 요소는 '맥락'이다. 담화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05** 한씨는 도시 여행을 다녀와서 자신이 도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것을 분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르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을 두메에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 06** 문 선생님은 한씨와 대화를 나누며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한씨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해 주었고,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며 한씨와 생각을 나누고 있다.
- 07** ①의 '달걀'은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기른 암탉이 낳은 소중한 것으로, 한씨에게 도시 여행비가 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08** 한씨는 '달걀을 달걀로 갚으렴.'이라고 말하는 문 선생님에게 그 방법을 묻고 있고, 문 선생님은 ①에서 그걸 생각해 보자고 하고 있으므로 이후에 두 사람은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 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09** 문 선생님은 이번에는 달걀을 판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여 두메의 자연을 보여 주고자 한다.
- 10** 문 선생님은 한씨에게 도시에서의 경험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도시 아이들보다 한씨가 우월하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 11 [A]에서 한피는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자는 문 선생님의 말에 도시에서는 별의별 것을 다 보았지만 두메산골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한다.
- 12 한피는 도시가 두메보다 문명이 발달하였으므로, 도시 아이들이 두메에 왔을 때 신기해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으스스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한피는 도시가 두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리는 경험을 의미한다.
- 14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달랐던 생각이 같아지게 되었다.

내용이 탄탄해지는 **대단한 문장**

84~89쪽

- 01 ① 02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내용, 맥락
03 ⑤ 04 자원봉사에 지원하려면 달빛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05 ⑤ 06 ㉠은 '좋아. 잘 어울려.'의 의미이고, ㉡은 '음식의 양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더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다. 07 ①
08 ① 09 ⑤ 10 ④ 11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12 ② 13 ② 14 달걀은 여행비가 될 소중한 것이다. 15 ③ 16 ② 17 ④ 18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르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는 것이다. 19 문 선생님은 달걀을 팔아 여비를 마련하여 도시의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고자 한다. 20 ① 21 ⑤ 22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 01 짧은 대화라고 해도 '말하는 이, 듣는 이, 내용, 맥락'이 있다면 담화가 될 수 있다.
- 02 (나)를 통해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내용, 맥락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03 (가)는 지훈이와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방과 후 지훈이가 봉사 활동 신청을 위해 달빛 도서관에 들른 상황이다.
- 04 안내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관심 있는 학생은 달빛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라고 했으므로 자원봉사를 하려면 이 지시를 따라야 한다.
- 05 (가)의 담화에서 봉사 활동 모집 대상이 중학생임을 알 수 있다.
- 06 ㉠은 '(새로 한 머리 모양이)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으로 좋다.',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이다. ㉡은 '음식의 양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더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다.

- 07 (가)와 (나)에서는 '괜찮아.'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 08 <보기>에서 할머니는 '모난 데가 없이 복이 있어 보여 보기 좋다.'라는 의미로 '복스럽다'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이를 '(얼굴이나 몸매가) 뚱뚱하다.'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싫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세대에 따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해야 한다.
- 09 (가)에서는 두 사람이 전화를 통해 대화하고 있어서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에서는 두 사람이 대면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위층 사람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 10 (가)에서 아래층에 사는 '나'는 위층 사람이 휠체어를 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의로 소음을 낸다고 오해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11 (가)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고 대화하여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문 선생님은 봄피의 암탉 문제와 관련하여 한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피에게 읍내에 통닭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목적은 통닭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13 한피가 암탉을 죽이려는 것은 닭을 길러 달걀을 판 돈으로 여행비를 모아 도시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천대하는 모습을 보았던 한피가 다른 아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14 도시 여행을 하기 전까지 한피에게 달걀은 귀여운 동생을 울리면서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애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 15 문 선생님은 한피의 생각을 더 들어 보기 위해 '한피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 보렴.', '무엇이 네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생각하니?'와 같이 질문하고 한피의 대답을 들으며 협력적인 듣기 태도로 대화하고 있다.
- 16 이 글에서 한피는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와 같이 말하며 문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또 달걀을 달걀로 값는 방법에 대한 문 선생님의 의견에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 17 한피는 도시 사람들에게 양갓음을 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④가 적절하다.

- 18 한희는 도시 사람들에 대한 양감으로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잡거나 유명해져서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르도록 하고 싶어 한다.
- 19 문 선생님은 한희에게 암탉을 잘 돌봐서 알을 낳으면 그것을 팔아 여비를 마련하여 도시의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20 '문명', '공원', '분수'는 모두 도시에 있는 것들이고, '자연', '선녀 목포'는 모두 두메에 있는 것들이다.
- 21 문 선생님이 한희에게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고 하면서, 사물의 여러 가지 쓸모를 알아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22 서로 달랐던 둘의 생각이 대화를 통해 하나로 일치되는 과정을 통해, 듣기 · 말하기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3 알기 쉽게 설명하기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단원 맛보기

92쪽

1 (1) ○ (2) ○ 2 ② 3 분석 4 적절성, 특성

- 2 자연이 쓰레기들을 흡수해 준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3 분석은 얹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 4 설명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그 방법이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93~96쪽

1 ② 2 뜻, 정의 3 공감각, <풍덩> 4 ④ 5 ② 6 ④
7 비결, 명확 8 ③ 9 예술 작품, 공감각

- 1 이 글에서는 처음 부분에 김광균의 시를 제시하여 시에 드러난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공감각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2 ㉠에서는 '정의'를 활용하여 공감각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3 (나)에서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인 <풍덩>을 예로 들어 공감각을 설명하였다.
- 4 <풍덩>에서는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다 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 5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 6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올라 상상력이 갇히게 되기 때문에 한 글자인 '아' 자를 고른 것이라고 하였다.
- 7 설명 대상인 '아' 자를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어 각각 파악함으로써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 8 김호득은 자신의 그림이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 온 그림들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 9 글쓴이는 예술가들이 일반인들보다 공감각이 발달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감각을 되살리려면 예술 작품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핵심 속삭

P. 94 감각, 공감각, 정의 / 강렬, 거칠게, 구도, 감각, 그림, 공감각
P. 96 거꾸로, 울림, 그림, 공감각 / 공감각, 예술가, 일곱, 예술 작품

이해와 탐구

97~101쪽

1 (1) 공감각, 그림, 공감각 (2) 아크릴, 소리, 물보라 / 그림 / 소리 / 공감각 2 뜻, 예, 공통점, 기준, 원인, 분석 / 정의 / 기법, 나누어
3 (1) 영역, 그림, 하나, 예술 (2) 정의, 예시 (3) 공감각, 이해 4 이해
5 (1) 해저, 대륙붕, 물고기, 황금 / 벌어져, 안쪽, 높은 / 안쪽, 푸른 (2) 인과, 결과 / 대조, 차이점 (3) 분류, 예, 예시

문제 해결과 적용

102~104쪽

1 (1) 예시, 분류, 예시, 예시, 예시 (2) 뜻, 주관성, 종류, 예, 영향, 업무 효율성, 집중력, 영향, 백색 소음, 좋은 (3) 정의, 예, 분류, 예시 (4) 뜻, 예, 이해, 적절하게, 예 (5) 예시

! 학습 활동 응용

97~104쪽

01 ② 02 ④ 03 ⑤ 04 공감각 05 ④ 06 비교 07 색채, 요소, 분석 08 ① 09 ① 10 ② 11 ⑤ 12 ④
13 황금 어장 14 서양 종, 우리 종 15 ② 16 ⑤ 17 ⑤
18 차이점, 특성 19 ② 20 백색 소음 21 ③ 22 ⑤
23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24 ① 25 예시 26 ① 27 ④ 28 ⑤ 29 ②
30 이해

- 01 이 글에서는 그림 <풍덩>과 <아>를 예로 제시하여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02 데이비드 호크니는 <풍덩>에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려 넣지 않아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 03 김호득의 <아>에서 'ㅌ'는 하단에 고정되어 있지만 'ㅇ'은 허공에 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 04 <풍덩>은 다이빙할 때 나는 소리인 '풍덩'을, <아>는 소리가 자 글자인 '아'를 그림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하였다.
- 05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인과'이다.
- 06 두 대상(진달래, 철쭉)을 견주어 서로 공통되는 속성(분홍색 꽃)을 찾아 설명하는 방식은 '비교'이다.
- 07 이 글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방법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 08 ㉠에 활용된 설명 방법은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이다.
- 09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정의'를 활용하여 공감각의 뜻을 밝혔으며, 끝 부분에서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것을 권하였다.
- 10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미술 작품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과 김호득의 <아>를 예로 들어 그림에 담긴 공감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인 친근한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이다.
- 11 <풍덩>에서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방법은 대상을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인 '분석'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 12 (가)에서는 독도 주변의 해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3 (가)에서는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생성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14 (나)에서는 서양 종과 우리 종의 특징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15 서양 종은 종의 위쪽이 좁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다고 하였다.
- 16 (가)에서는 독도 주변의 대륙붕 지형이 원인이 되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우리 종과 서양 종의 특징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17 (가)에서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통해 대륙붕 지형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 18 (나)에서는 '대조'의 방법으로 서양 종과 우리 종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각각의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분류 · 구분'이다.
- 20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백색 소음'이다.
- 21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것은 '컬러 소음'이라고 하였다. '백색 소음'은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다.
- 22 (다)에서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지만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23 (다)에서는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24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했을 때 베타파가 줄어 들고 알파파가 증가했다고 하였으며, 집중력과 관련된 것은 알파파이다.
- 25 <보기>는 백색 소음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 26 이 글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통해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27 이 글은 백색 소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한 글로, 백색 소음의 위험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 28 <보기>에서는 '분류'를 사용하여 소음의 종류를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29 이 글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관련된 예를 들어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 30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 마무리

105쪽

글의 개관 설명 방법, 구어체

글의 짜임 풍덩, 공감각

그림에 드러난 공감각 그림, 아, 그림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 뜻, 예, 분석

설명 방법의 종류 정의, 예, 공통점, 기준, 결과, 요소

설명 방법의 적절성 평가 대상, 이해



01 ① 02 ① 03 ⑤ 04 ④ 05 ② 06 설명 대상인 '아'를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고 이를 각각 파악함으로써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분석'을 활용하였다. 07 ③ 08 '인파'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대륙붕 지형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09 ② 10 ① 11 ④ 12 ① 13 ③ 14 백색 소음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 01 이 글에서는 그림에 드러난 공감각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02 <외인촌>의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청각적 심상)를 눈으로 보는 분수(시각적 심상)에 비유했다고 하였다.
- 03 이 글에서는 <외인촌>과 <풍덩>을 통해 공감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나 이 두 작품을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 04 <아>의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 온 다른 그림과 다르다고 했을 뿐, 그 작품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 05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올라 상상력이 갇히게 된다고 하였다.
- 06 글쓴이는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설명하기 위해, '아'를 'ㅇ'과 'ㅏ'로 나누어 각각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07 (나)에서는 우리 종과 서양 종의 특성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 08 (가)에서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파'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09 ㉠은 '땅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 걸어 놓'는다고 하였다. 주로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것은 '서양 종'에 대한 설명이다.
- 10 (나)에서는 우리 종과 서양 종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조하여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11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비 오는 소리, 시냇물 소리 등은 백색 소음에 해당한다.
- 12 <보기>에서는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여 희곡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은 소음의 뜻을 설명한 ㉠이다.
- 13 백색 소음을 들은 뒤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은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 14 이 글은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여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02. 설명하는 글 쓰기

단원 맛보기

110쪽

- 1 내용 선정하기 2 내용 조직하기 3 ③ 4 (1) ○ (2) ×
- 2 개요는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의 짜임을 정리한 것이다.
- 3 고쳐쓰기의 목적은 글에서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해와 탐구

111~116쪽

[계획하기] 까닭, 설명
[내용 선정하기] 1 후각, 콧구멍
[내용 조직하기] 1 속담, 삭제 2 바깥 코, 코안, 분석
[표현하기] 분석, 비교
[고쳐쓰기] 고쳐쓰기, 이해

핵심 속삭

P. 111 계획, 주제
P. 112 선정, 수집, 매체, 주제
P. 113 개요, 설명 방법
P. 115 개요, 이해
P. 116 목적, 문장

! 학습 활동 응용

111~116쪽

01 ③ 02 ③ 03 ③ 04 학급 친구들 05 ③ 06 ② 07 ② 08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 발달해 있다는 내용은 사람의 코와 콧구멍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른 자료들과 거리가 있어 주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09 ⑤ 10 ③ 11 비교, 대조 12 ③ 13 ③ 14 ⑤ 15 ② 16 두 개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쉬기 때문이다. 17 ③ 18 ① 19 ① 20 ① 21 코의 기능을 추가하여 설명 22 ③ 23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이므로 '금세'로 고쳐 써야 한다.

- 01 현재는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 02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는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 03 현재는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 04 현재는 '친구들에게 그 까닭을 알려 주는 글을 쓴다면 재미있게 읽겠지?'라고 생각하며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 05 직접 글을 써 보는 것은 ‘표현하기’ 과정에 해당되는 활동이다.
- 06 현재는 자신의 경험, 인터넷 검색, 관련 서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07 현재는 사람의 코와 콧구멍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므로, 개의 후각에 관한 내용인 ㉠은 주제에서 벗어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08 수집한 자료 중 주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것만 선정해야 한다.
- 09 개요를 완성한 후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하며 수정한다.
- 10 코의 구조를 바깥 코와 코안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요소를 설명해야 하므로 분석이 적절하다.
- 11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은 비교와 대조이다.
- 12 ‘코에 관한 속담’은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13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 끝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 14 두 개의 콧구멍이 번갈아 가며 냄새를 맡아 후각 세포가 피로해지는 것을 막는다고 하였다.
- 15 ㉠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 사람과 낙타의 콧구멍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은 대조이다.
- 16 코로 숨을 쉴 때 콧구멍의 크기가 줄어들지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두 개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17 고쳐쓰기는 글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수정하는 것이다.
- 18 글의 제목이 글 전체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고쳐 써야 한다.
- 19 ㉠ 뒤에는 코의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에는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 20 ㉢은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다루어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21 ㉣의 앞 문단과 뒤 문단 모두 코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그리고’와 같은 접속어가 적절하다.
- 22 ‘무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예민’이다.

- 23 고쳐쓰기를 할 때는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고쳐 써야 한다.



소단원 마무리

117쪽

현재의 설명하는 글 쓰기 과정

- 계획하기 목적, 콧구멍, 설명, 학급 친구들
- 내용 선정하기 주제, 주제
- 내용 조직하기 개요, 설명 방법
- 표현하기 개요, 설명 방법
- 고쳐쓰기 주제, 단어, 이해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118~121쪽

- 01 ⑤ 02 ④, ⑤ 03 ⑤ 04 ① 05 ⑤ 06 ㉠,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다. 07 ④ 08 ④ 09 d 10 ⑤ 11 ③ 12 ⑤ 13 ① 14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15 ④
- 01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설명 대상을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해야 한다.
- 02 아름이의 글에는 휴대 전화를 잃어버린 시간이나 기종 등의 정보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으며, 반말과 존댓말이 섞여 있으므로 반말을 존댓말로 수정하여 읽는 이를 배려하는 것이 좋다.
- 03 ‘그래,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글을 써 보자.’를 통해 현재가 쓰려는 글의 목적이 ‘설명’임을 알 수 있다.
- 04 (가)에서 현재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앞으로 쓸 글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에는 ‘계획하기’가 들어야 한다.
- 05 글에 쓸 내용을 선정할 때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내용만 골라 정리해야 한다.
- 06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할 때에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한 주제를 기준으로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을 제외해야 한다.
- 07 고쳐쓰기는 글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점점 항목을 바탕으로 자신의 초고를 고쳐 쓰는 것은 표현하기 과정이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
- 08 중간 ㉢의 ‘코에 관한 속담’은 주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09 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인 바깥 코와 코안으로 나누어 코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 ‘분석’이 적절하다.



- 10 이 글은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
- 11 이 글에서는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코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콧구멍은 왜 두 개인까?’가 적절하다.
- 12 (가)는 이 글의 ‘처음’ 부분이다.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 13 (나)는 코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문단의 내용을 안내하는 문장인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 14 ㉠은 환경에 따라 콧구멍의 모양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이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15 ‘금새’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이므로 ‘금세’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나공이 탄탄해지는 **한글 맞춤법**

122~127쪽

01 ㉠ 02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하고 푸르다고 표현하여 청각을 시각화하였다. 03 ①, ② 04 ㉠ 05 ① 06 귀로 듣는 ‘퐁당’ 소리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 07 ④ 08 ③, ④ 09 화가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이다. ‘아’를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10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아’를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고 이를 각각 파악함으로써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11 ① 12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 13 ⑤ 14 ⑤ 15 ③ 16 예시, 백색 소음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험을 예로 보여 주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18 ㉠ 19 ⑤ 20 ④

- 01 (가)에서는 시를 통해 공감각을 설명하였으므로 글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만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은 종소리가 널리 퍼지는 모습을 물살이 흩어지는 분수에 빗대었고 종소리를 색채어를 써서 푸르다고 표현함으로써 청각적 심상의 대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였다.
- 03 이 글에서는 공감각을 활용한 시를 글의 처음에 제시하여 공감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04 ㉠에서는 공감각의 뜻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였고 ㉡에서도 관습의 의미를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 05 (나)에서는 예시, 분석 등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을 설명하였다.

- 06 (나)에서는 색채와 기법, 구도 등의 여러 요소로 구분하여 <퐁당>에서 귀로 듣는 ‘퐁당’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07 (마)에서는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공감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을 뿐 어린아이와 예술가의 공감각을 비교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8 예시, 분석, 인용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시’를 통해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설명하거나, ‘아’자로 그린 두 그림을 대조하지는 않았다.
- 09 (가)에서 화가가 왼손잡이이며, ‘아’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읽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되기 때문에 <아>에서 ‘아’자를 거꾸로 쓴 것이라고 하였다.
- 10 (다)에서는 대상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그림 <아>를 ‘ㅇ’ 부분과 ‘ㅏ’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 11 ㉠에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이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12 (가)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대륙붕 지형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13 (나)와 <보기> 모두 ‘대조’를 활용하여 대상을 설명하였다. (나)에서는 우리 종과 서양 종의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보기>는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14 (나)에서 백색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비 오는 소리, 폭포수 소리 등도 백색 소음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야만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5 이 글에서는 백색 소음이 갖는 다양한 음높이에 대해 따로 설명 방법을 들어 설명하지 않았다.
- 16 (다)에서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 준다는 백색 소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였고, (라)~(바)에서 예시를 통해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 17 이 글은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이다.
- 18 이 글에서는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구조와 기능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료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수 집해야 하므로 개와 사람의 후각 차이를 설명한 도서 자료는 이 글을 쓰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19 두 개의 콧구멍이 무엇의 피로를 방지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에 ‘후각 세포의’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20 <보기>의 개요를 보면 코안은 코중격, 코 선반, 코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글에는 '코 천장'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따라서 ㉔에 코 천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4 올바른 국어 생활

01. 올바른 발음과 표기

단원 맛보기

130쪽

- 1 (1) × (2) ○ 2 의사, 희망 3 ㉔ 4 부치다
- 2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니'는 이중 모음 [니]로 발음하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한다. 따라서 의사는 [의사]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해야 한다.
- 3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겹받침 '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되므로 [막찌]가 올바른 발음이다.
- 4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낼 때나,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길 때는 '부치다'를 쓴다.

핵심 콕콕

- P. 131 자음, ㄴ, 조사
P. 133 ㄴ, ㄹ, ㄱ, 자음, ㄷ, 모음, 음가, 실질 형태소
P. 135 ㅅ, 접미사, 뒤엿것
P. 137 돼, 되고
P. 138 아니하
P. 139 낫다, 나았으면, 배 속
P. 140 맛달아, 부치다, 보내다, 부치다

이해와 탐구

131~140쪽

- ['니'는 어떻게 발음할까?] 1 (1) 의사, 희망 (2) 히 2 의자 / 주의, 주이 / 나의 마음, 나에 마음 / 허용, 주이, ㄱ, 나에 마음 3 한머리, ㄴ, 무니
- ['입'과 '앞'은 발음이 같을까?] 1 (1) 입 (2) ㄱ, ㄷ (3) 받, 빈 2 이플, 이바래, 이뵈 / 이피, 이플, 실질 형태소, 이바래, 이뵈 3 꼬츨, 꼬뒤로
- ['값'과 '닭'은 어떻게 발음할까?] 1 (1) 닥 (2) ㄹ, ㅂ (3) 삼 2 달기, 안자서, 널비 / 된소리, 갑씨, 이, 어미, 안자서, 널비 3 여덜, 달뜨려고
- [얼음을 '□어'일까, '됐어'일까?] 1 되, 어, 됐어 2 되는, 됐습니다
- [아침을 '안' 먹은 걸까, '않' 먹은 걸까?] 1 (1) 안을래 (2) 아니, 았을래 2 안, 았았어

- [병이 '낫다'일까, '날다'일까?] 1 (1) 새끼, 상처 (2) 낫지, 낫다
2 날다, 낫기를
- [친구에게 편지를 '부치다'일까, '붙이다'일까?] 1 (1) 붙이다, 부치다
(2) (편지) 붙이기, (편지) 부치기 / 부치기 2 붙였다, 부쳐

문제 해결과 적용

141~142쪽

- 1 [지여계], [대설주:보/대설주이:보], [안파피/안파게], [아프로], [말가지겐찌만] / 아프로, ㄴ, 대설주이보, 첫소리, 안파게, 뒤엿것, ㄷ
2 수제비, 떡볶이, 육개장,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

! 학습 활동 응용

131~142쪽

- 01 ① 02 ① 03 의견, 의미 04 ⑤ 05 ㄴ, ㄱ 06 ⑤
07 [할머니의 흰색], [할머니에 흰색] 08 ④ 09 ⑤ 10 ④
11 ① 12 ④ 13 ㄱ 14 ② 15 ② 16 ④ 17 대표음
(ㅂ) 18 ⑤ 19 ③ 20 ① 21 ㄷ: [엮] ㄷ: [홀] ㄷ: [점]
22 ③ 23 ① 24 ㄴ, ㄹ 25 ㄷ: [홀기], ㄷ: [목של] 26 ①
27 ③ 28 ③ 29 ㄷ: 돼, ㄷ: 됐다 30 ③ 31 ③ 32 ①
33 ④ 34 ④ 35 ① 36 ① 37 ①, ④ 38 ④ 39 ②
40 '붙였다' → '부쳤다' 41 붙이다 42 ④ 43 ③ 44 ①
45 ③ 46 앓 → 안, 됐다 → 됐다 47 ③ 48 ⑤

- 01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르면 '니'는 이중 모음 [니]로 발음한다.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한다.
- 02 나머지는 모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어 [니]로 발음되나 '의논'의 '니'는 [니]로 발음된다.
- 03 '의견, 의미'의 '니'는 이중 모음 [니]로, '띄어쓰기, 유희, 틱우다'의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니]로 발음한다.
- 04 '닐'은 자음 'ㄴ'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닐리리'는 [닐리리]로 발음해야 한다.
- 05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르면 '니'는 이중 모음 [니]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니]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06 조사 '의'는 [니] 외에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따라서 [새의 선물], [새에 선물]로 발음한다.
- 07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할머니의], [할머니에]로 발음할 수 있다. 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해야 하므로 '흰색'은 [흰색]으로 발음한다.
- 08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니]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주의’는 [주의]와 [주이]로 발음할 수 있고,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나에 마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 09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10 나머지는 모두 받침소리가 [ㄷ]이지만, ‘짚’의 받침소리는 [ㅂ]이다.
- 11 ‘꽃’은 [꼇]으로 발음한다.
- 12 ‘있다’의 받침소리는 [ㄷ], ‘쉬다’의 받침소리는 [ㄱ]으로 서로 다르다.
- 13 ‘ㄱ, ㄲ, ㅋ’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인 [ㄱ]으로 발음한다.
- 14 ‘낮이’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한 경우이므로 [나지]로 발음한다. ①은 [이페], ③은 [쪼차], ④는 [바테], ⑤는 [꼬치]로 발음해야 한다.
- 15 ‘웃이’와 ‘꽃을’은 모두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각각 [오시], [꼬출]로 발음해야 한다.
- 16 ‘창밖을’은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것이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창바꼇]로 발음한다.
- 17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따르면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ㅖ’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 18 ‘꽤’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넌다’는 [넌따]로 발음한다.
- 19 ‘핥다’의 ‘ㅼ’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고, ‘발’의 ‘ㅖ’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으로 발음하므로 서로 다르다.
- 20 ‘리’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므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된다. ‘ㄱ’ 또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므로 ①의 ‘넋’이 ‘맑다’와 받침소리가 같다.
- 21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ㅼ’, ‘ㅼ’, ‘ㅼ’는 각각 [ㅂ], [ㄹ], [ㅁ]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없’은 [업]으로, ‘훈’은 [훈]로, ‘젊’은 [집]으로 발음한다.
- 22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23 ‘ㅅ’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갑쓸]이 올바른 발음이다.
- 24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

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ㄱ의 ‘넋이’는 [넌비], ㄷ의 ‘맑은’은 [말근]으로 발음해야 한다.

- 25 겹받침 ‘리’, ‘ㄱ’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었으므로 뒤엿것인 ‘ㄱ’과 ‘ㅅ’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이때 ‘ㅅ’은 된소리 ‘ㅆ’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홀기], [목쓸]이 올바른 발음이다.
- 26 ‘되-’ 뒤에 ‘-어’가 붙으면 ‘돼’로 줄여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7 ‘되었어요’나 ‘됐어요’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이다.
- 28 ‘되-’ 뒤에 ‘-어’가 붙었을 때에만 ‘돼’로 줄여 써야 한다. 따라서 ㄹ의 ‘되는데’와 ㅁ의 ‘됐다는’은 올바른 표기이다. ㄱ은 ‘안 돼’로, ㄴ은 ‘돼서’로, ㄷ은 ‘되면’으로 표기해야 한다.
- 29 ‘되-’ 뒤에 ‘-어’가 붙었을 때는 줄여서 ‘돼’로 쓴다.
- 30 ‘안’은 ‘아니’를 ‘않-’은 ‘아니하-’를 줄여 쓴 말이다. ‘안 보겠다.’는 ‘아니 보겠다.’를 줄여 쓴 것이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 31 ‘나타나지 않았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 32 ‘아니 했다.’를 줄여 쓴 것이므로 ‘오늘은 지각을 안 했다.’라고 써야 한다.
- 33 ‘안’은 ‘아니’를 ‘않-’은 ‘아니하-’를 줄여 쓴 말이므로 ‘않을래’, ‘안’, ‘않았어’가 올바른 표기이다.
- 34 용기는 ‘낮지’라고 표기해야 할 단어를 ‘날지’라고 잘못 표기했다.
- 35 감기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면 만나자는 뜻이므로 ‘나으면’이 올바른 표기이다.
- 36 ㉠은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의미의 ‘낮다’를 활용해 ‘나으면’으로, ㉡은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의미의 ‘날다’를 활용해 ‘날을’로 표기해야 한다.
- 37 <보기>의 빈칸과 ①, ④에는 공통적으로 ‘날다’가 들어갈 수 있다.
- 38 ④는 색종이를 오려 도화지에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붙였다.’로 써야 한다.
- 39 나머지는 ‘부치다’를 쓸 수 있지만, ②는 옷에 이름표를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붙이다’를 써야 한다.
- 40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부치다’이다.

- 41 빈칸에는 모두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의 ‘붙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 42 ‘니’는 이중 모음 [니]로 발음한다.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대설주의보’는 [대설주의:보]와 [대설주이:보]로 발음할 수 있다.
- 43 <보기>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하여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경우이다.
- 44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맑아’는 [말가]로 발음한다. 또한 ‘쓰’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치]로 발음하므로 [말가지깰찌만]이 바른 발음이다.
- 45 ‘육개장’이 올바른 표기이다.
- 46 ‘않-’은 ‘아니하-’의 줄임말이고, ‘안’은 ‘아니’의 줄임말이므로 ‘실수를 안 하려고’가 적절하다. 또한 ‘되었다’를 줄여 쓰면 ‘됐다’가 되므로 ‘거두게 됐다’라고 써야 한다.
- 47 ‘감자볶음’이 올바른 표기이다.
- 48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은 ‘바람’이다. ①~④는 고치기 전이 알맞은 표기이다.



소단원 마무리

143쪽

‘니’의 올바른 발음 |, 니, ㄴ, 주이
우리말 받침의 발음 ㄷ, ㅂ, ㅇ, 부엌, 입
겹받침의 발음 ㄴ, 알, 갑, 닥
받침이 모음과 만날 때 나타나는 발음의 변화 꼬출, 이바래, 꼬뒤, 널비, 갑쓸
올바른 표기 돼, 됐다, 안, 안, 앓, 앓, 낳다, 낳다, 붙이다

교과서 속 예시
중점 연습하기

144쪽

01	단어	발음
	의사	[의사]
	희망	[희망]
	주의	[주의/주이]
	무늬	[무니]
	나의 마음	[나의 마음/나에 마음]
02	단어	발음
	박, 밖, 부엌	[ㄱ]
	웃, 있다, 낯, 빛, 발	[치]
	입, 잎	[ㅂ]

03 (1) [이피] (2) [꼬뒤] (3) [꼬출] (4) [이바래]

04	단어	발음
	넋	[넉]
	앓다	[안따]
	할다	[할따]
	살	[삼]
	앉아서	[안자서]
	달으려고	[달므려고]

05 어말, ㅂ, 모음, 된소리

06 되고, 돼서, 되었다

07 아니, 아니하-

08 (1) 낳다 (2) 낳기를 (3) 붙였다 (4) 부쳤다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145~147쪽

- 01 ① 02 ㉠: [의자] ㉡: [희망] 03 ④ 04 ③ 05 ⑤
06 받침 ‘ㄱ, ㄴ, ㅋ’은 어말에서 모두 대표음 [ㄱ]으로 발음한다.
07 ⑤ 08 ③ 09 ㉠: [널따] ㉡: [박따] 10 ⑤ 11 ③
12 ③ 13 올바르지 않은 표기이다. ‘되어서’를 줄인 말인 ‘돼서’라고 써야 하기 때문이다. 14 용기가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의미를 ‘낫지’가 아닌 ‘날지’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이다.
15 ⑤ 16 ㉠: 안 하면, ㉡: 받아들이려고 17 ② 18 ⑤

- 01 ‘빛을’은 [비출]로, ‘빚을’은 [비슬]로 발음해야 한다.
- 02 ‘의자’에서 ‘의’는 [의]로 발음하고, ‘희망’에서 ‘희’는 자음 ‘ㅎ’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히]로 발음해야 한다.
- 0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이]로 발음하므로 [떠어쓰기]로 발음해야 한다.
- 04 ‘ㅂ’과 ‘ㅍ’은 모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인 [ㅂ]으로 발음한다.
- 05 ‘있다’, ‘술’, ‘낫’은 받침소리가 [치]으로 모두 같다.
- 06 ‘박’과 ‘밖’과 ‘부엌’은 각각 받침이 ‘ㄱ’, ‘ㄴ’, ‘ㅋ’으로 모두 다르지만, 어말에서 대표음 [ㄱ]으로 발음한다.
- 07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잎이’는 [이피]로 발음해야 한다.
- 08 ‘ㅼ’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옮고’는 [읍꼬]라고 발음해야 한다.
- 09 겹받침 ‘ㅼ’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치]로 발음하므로 ‘넋다’는 [널따]로 발음해야 한다. 겹받침 ‘ㅼ’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치]로 발음하므로 ‘뵤다’는 [박따]로 발음해야 한다.
- 10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또한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각각 [달근], [여덜븐], [갑쓸]로 발음해야 한다.

- 11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되므로 [알:따]는 올바른 발음이며, 겹받침 ‘ㄷ’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면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홀글]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 12 <보기>를 보면, ‘되-’ 뒤에 ‘-고’가 왔을 때는 ‘되고’로, ‘되-’ 뒤에 ‘-어서’나 ‘있다’가 왔을 때는 줄여서 ‘돼서’나 ‘뒀다’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되-’ 뒤에 ‘-어’가 붙었을 때 줄여서 ‘돼’로 쓴다고 이해한 ③이 적절하다.
- 13 ‘돼서’는 ‘되어서’의 준말이다. ‘친구가 되어서 기쁘다.’라고 써야 하므로 ‘친구가 돼서 기쁘다.’라고 줄여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 14 ‘낫다’는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의미이고,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 등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의미이다. <보기>의 상황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가 고쳐지지 않은 것이므로 ‘낫다’를 써야 한다.
- 15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부치다’를 써야 한다.
- 16 ㉠의 경우 ‘안 하면’은 ‘아니 하면’으로 고칠 수 있으므로 ‘아니’의 준말인 ‘안’을 써야 한다. ㉡의 경우 ‘받아들이려고’가 올바른 표기이다.
- 17 ‘-’는 이중 모음 [-]로 발음하지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따라서 [대설주의:보/대설주이:보]로 발음할 수 있다.
- 18 ‘낙지볶음’이 올바른 표기이다.

02. 매체 바르게 읽기

단원 맛보기

148쪽

1 (1) × (2) ○ 2 문장 3 ⑤ 4 ㄷ

- 3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등은 시각 자료이며 애니메이션은 동영상 자료이다.
- 4 자료의 양은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핵심 콕콕

P. 149 모바일 페이지, 현금

P. 152 현금, 장점, 동영상 / 차별, 보안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149~152쪽

1 ② 2 ② 3 ⑤ 4 이해 5 도표, 비교 6 ① 7 ④ 8 ④

- 1 빠르면 15년 안에 일상에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전달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 2 ‘~입니다’를 생략하고, ‘결제 완료’나 ‘끝’을 반복해 모바일 페이지가 간편하게 사용되는 일상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 3 실생활에서 모바일 페이지로 결제하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4 이 뉴스에서는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5 도표를 활용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수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내용을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 6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했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7 [A]는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우려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 8 동전이나 지폐를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므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해와 탐구

153~156쪽

- 1 (1) 현금, 전망 / 현금, 장점 / 과제 (2) 현황, 과제, 균형 2 (1) 강조, 현금, 이미지, 이해, 비중, 비교, 신뢰성 / 시각, 보안 (2) 반복, 간편, 강조 / 모바일 페이지 (3) 요약, 시각적 / 중국, 이해, 현금 없는 사회 3 (1) 객관적 (2) 현장감, 객관적 / 적절성, 의도

문제 해결과 적용

157~159쪽

- 1 (1) 안전, 법규 (2) 요약, 대조, 사실감 (3) 정보, 이해 (4) 뒷받침

! 학습 활동 응용

153~159쪽

- 01 모바일 페이지, 현금 02 ④ 03 ⑤ 04 ② 05 단순한 이미지로 내용을 표현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06 ② 07 ③ 08 ③ 09 ② 10 ㄴ 11 ② 12 ① 13 ④ 14 ④ 15 ⑤ 16 끝고 17 ⑤ 18 ② 19 ⑤ 20 법안, 안전 의식 21 ㄱ, ㄴ 22 ④ 23 ①, ③

- 01 진행자는 도입부에서 이 뉴스의 화제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02 이 뉴스에는 ‘현금 없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3 이 뉴스는 현금 없는 사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 및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려 시청자들이 균형 있는 관점을 갖게 한다.
- 04 현장 화면은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여러 모습을 보여 주어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05 가게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6 ㉔에 지급 수단이 변화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도표 자료이기 때문에 생생한 전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07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 쉽고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다.
- 08 ‘결제 완료’, ‘끝’ 등을 반복하여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함을 강조하였다.
- 09 자막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10 이 글에서는 스웨덴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행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 11 ㉑는 인터뷰 자료로, 모바일 페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의 생각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2 ㉒는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수치화하여 한 번에 보여 준다는 점에서 ㉑에 비해 객관성을 띠고 있다.
- 13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려주어 생생한 느낌을 주는 것은 ㉑의 인터뷰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 14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면 매체의 종류는 중복되게 사용할 수 있다.
- 15 이 기사는 자전거 이용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16 ㉔은 자전거 이용자의 바람직한 횡단보도 이용 사례를 보여 주는 사진이다.
- 17 ㉔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 주어 경각심을 갖게 한다.
- 18 이 글에서 자전거는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㉑),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때는 ‘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㉔).

- 19 ㉔은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사진이다.
- 20 전기 자전거 운행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전거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안전 의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21 이 기사에서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준수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22 ‘타고 가면’, ‘끌고 가면’과 같이 비슷한 구절로 짝을 지어서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했다.
- 23 이 기사는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전거의 가격이나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 빈도 통계는 추가할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소단원 갈무리

160쪽

글의 개관 표현 방법, 사례, 균형

글의 짜임 스웨덴, 부작용, 전망

이 뉴스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효과 간편, 시각적, 시각화, 비교, 이미지, 생생한, 전문가, 현장감, 신뢰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 방법 의도, 이해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자잡기

161~163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⑤ 05 ① 06 ② 07 아직 현금이 더 익숙한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바일 페이로 큰돈을 결제하거나 송금해도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08 ④ 09 기억하기 쉽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한다. 10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 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11 ⑤

- 01 (다)에서 앞서 나온 장면(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장면)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 02 (가)는 뉴스의 도입 부분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03 이 뉴스에서는 국가별 모바일 페이 시장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모바일 페이 시장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올랐을 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 04 생산자의 의도와 매체의 특성, 전달하려는 내용 등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지 꼭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5 (가)에서는 도표를 통해 갈수록 현금의 사용 비중이 줄어들



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6 (나)와 (다)에서는 자막을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07 (라)의 마지막 문장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갖추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08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려는 의도를 담은 글이다.
- 09 이 글의 제목은 ‘타고 가면’, ‘끌고 가면’과 같이 비슷한 구절을 짝지어 보여 줌으로써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10 (나)의 사진 자료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실제 상황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한다.
- 11 <보기>의 자료는 (마)의 ‘지난 5년간~ 경향을 보인다.’라는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용이 탄탄해지는 **다매체** **문** **제**

164~168쪽

01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02 ② 03 ①: ㄱ, ④: ㄷ 04 ⑤ 05 받침 뒤에 모음 ‘ㅛ’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ㅛ’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거똥]으로 발음해야 한다. 06 ④ 07 ① 08 ‘안’은 ‘아니’를 줄여서 쓴 말이고, ‘않-’은 ‘아니하-’를 줄여서 쓴 말이므로 ‘안 먹었어’, ‘않을래’라고 고쳐 써야 한다. 09 ④ 10 부치다 11 ③ 12 ④ 13 ③ 14 ② 15 ② 16 ③ 17 ① 18 부정 결제 방지 시스템, 예 이아이(AI, 인공 지능), 사이버 보험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증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19 ④ 20 ① 21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 01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 02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띠고’는 [띠고]로 발음한다.
- 03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할 수 있으며,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발음한다.
- 04 ‘뭇, 삶, 쉼다’는 받침소리가 [ㄱ]으로 모두 같다.
- 05 받침 ‘ㅛ’과 ‘ㅅ’의 대표음은 [ㄷ]이다. ‘겉웃’은 ‘겉’ 뒤에 ‘ㅛ’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므로 받침 ‘ㅛ’을 대표음인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거똥]으로 발음한다.

- 06 <보기>의 ‘넓이’와 ‘늘어서’는 겹받침 ‘ㅍ’, ‘ㄹ’이 각각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이’, 어미 ‘-어서’와 결합되어 뒤엷것인 ‘ㅍ’, ‘ㄹ’이 각각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 것이다.
- 07 ‘되어’는 ‘돼’로 줄여서 쓸 수 있으므로 ‘되었다’는 ‘됐다’로 표기해야 한다.
- 08 ‘안 먹었어’는 ‘아니 먹었어’, ‘먹지 않을래’는 ‘먹지 아니할래’의 준말이다.
- 09 ④에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의미인 ‘낳다’가, 나머지는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의미인 ‘낫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0 ㉠~㉣에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라는 의미의 ‘부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1 ‘안팎의’는 쌍받침 ‘ㅍ’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의’와 만났으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또 조사 ‘의’는 [ㄴ]나 [ㄹ]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안파끼/안파께]로 발음해야 한다.
- 12 ‘육개장’이 올바른 표기이다. ①은 ‘자장면’과 ‘짜장면’ 모두 올바른 표기이며, ②, ③, ⑤는 고치기 전이 올바른 표기이다.
- 13 모바일 페이 시장이 성장했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만 시장의 계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14 이 글에서는 모바일 페이의 사용법을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 15 (라)와 같은 인터뷰 자료가 <보기>의 막대그래프보다 모바일 페이 이용자의 생각을 좀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6 한국에서 모바일 페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17 모바일 페이에 비해 현금이 안전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18 [A]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모바일 페이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9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20 ㉠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인 ㉠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21 이 글에서는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전거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안내하며 그것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험 대비편

1 함께 보아요

01. 함께 읽고 감상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4~5쪽

〈놀부전〉의 인물 간 외적 갈등 힘, 원망
 〈놀부전〉의 흥부가 부자가 되는 과정 바가지, 현실적
 〈놀부전〉에서 인물의 성격 재구성 의지, 배려 / 의존, 노력
 〈흥부전〉과 〈놀부전〉 속 흥부의 차이점 유산, 유산 / 잡일
 〈흥부전〉 속 놀부의 논리와 흥부의 태도 분수, 운명 / 도움, 매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6~7쪽

01 ① 02 ② 03 ⑤ 04 놀부는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스스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쳐 주기 위해 ①과 같이 말한 것이다.
 05 ② 06 ③ 07 ④ 08 (나)는 (다)와 달리 ‘-요’, ‘-조’와 같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준다.

- 01 (가)는 동화로, 문장이 짧고 운율이 느껴지지 않으며, (나)는 판소리계 소설로 문장이 길고 운율이 느껴진다.
- 02 원작에서 놀부는 동생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원작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작가는 원작에서 악인으로 평가된 놀부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꼭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 03 (나)에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제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흥부가 가난한 것이고 이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놀부의 생각일 뿐이다. 따라서 흥부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 04 놀부가 모질게 말하며 흥부를 쫓아낸 것은 자신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 흥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 05 흥부는 자신이 바가지 장수에게 팔았던 바가지가 놀부의 공간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부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 따라서 놀부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가)에서 흥부가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자란 박에서 재물이 나와 부자가 된다는 원작에 비해 현실적이다.
- 07 소년이 징검다리 근처에서 소녀가 오기를 기다린 것은 맞지만, 징검다리에서 소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8 소설인 (다)와 달리 노래인 (나)에서는 문장을 ‘-요’, ‘-조’로 끝맺음으로써 듣는 이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은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02.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8~9쪽

조지나의 내적 갈등 율리, 용서, 고백
 잘못을 고백하는 조지나의 심리 부끄러움, 죄책감
 조지나가 고백하는 부분에 쓰인 서술 방식 소재, 주체적
 카멜라 아줌마의 성격 이해, 분명
 조지나의 발걸음으로 표현된 심리 괴로운, 죄책감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 영상, 배경 음악, 표정, 감각적, 카메라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10~11쪽

01 ④ 02 ③ 03 ① 04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05 ⑤ 06 ① 07 ②

- 01 조지나는 율리를 흠친 일을 카멜라 아줌마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과 율리를 돌려주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서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 02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부끄러움과 죄책감, 아줌마에 대한 미안함과 잘못에 대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 03 인물의 말과 표정, 행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영화보다 글로 전하는 소설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 04 조지나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 05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지나. 그건 변하지 않아.”라는 말을 통해 카멜라 아줌마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06 조지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손을 가만히 잡아 준 것이다. 따라서 ㉠을 통해 조지나의 처지를 이해하는 카멜라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 감동적이다.
- 07 영상 대본은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시험 대비편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모의평가**

12~17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③ 06 원작에서 흥부가 부자가 되는 과정은 비현실적이나, (가)에서는 바가지를 팔아서 부자가 되므로 현실적이다. 07 ① 08 ①, ② 09 ① 10 ④ 11 ⑤ 12 (가)에서는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의 마음이 꽃 모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13 ④ 14 ⑤ 15 ① 16 인물의 행동을 통해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17 ④ 18 [A]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중요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면서 독자가 주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② 24 ⑤

- 01 이 작품은 형제간의 우애를 다룬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을 새롭게 해석한 동화이다. 원작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흥부와 놀부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등장인물로 인해 원작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다.
- 02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도와주니까’, ‘또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느냐?’를 통해 흥부가 놀부에게 계속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03 이 글에서 놀부는 흥부를 깨우치기 위해 바가지 장수로 하여금 흥부의 바가지를 모두 사들이는 행동을 한 점에서 적극적인 인물이며, 기지를 발휘하여 흥부를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4 ㉔은 부자가 된 흥부가 자신과 놀부 중 누가 더 부자인가를 가려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흥부가 그동안 놀부에게 진 신세를 갚고자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5 원작은 원작대로, 재구성한 작품은 또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원작과 비교하며 읽는다고 해서 원작이 더욱 가치 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원작인 <흥부전>에서는 비현실적이었던 내용을 (가)에서는 물건을 팔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었다.
- 07 (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고전 소설이고, <보기>는 현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이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나 사용하는 단어 등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 08 ‘하늘이 사람 낼 때 제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잘난 놈은 부자 되고 못난 놈은 가난한데 내가 이리 잘사는 게 네 복을 뺏었느냐?’와 ‘목멘 소리 내어 눈물방울이나 찍어 내면 네 잔피에 내가 속을 줄 알고!’라는 내용을 통해 놀부는 가난한 것은 운명이므로 흥부를 도와줄 이유가 없으며, 흥부가 잔피를 써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9 (가)는 소년의 입장에서만 소녀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

을 뿐, 소녀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 10 원작 소설인 <소나기>에서도 소년과 소녀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드러난다.
- 11 (가)는 (나)의 소설을 재구성하였지만, 원작에 없는 인물을 새롭게 창조하지는 않았다.
- 12 (가)에서 소년은 풀잎새와 예쁜 꽃송이로 만든 예쁜 꽃 모자를 소녀에게 씌워 주고 싶어 하며, 저녁까지 소녀가 오지 않자 꽃 모자를 냇물에 떠내려 보내고 있다. 이런 소년의 모습에서 소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드러난다.
- 13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인 ‘나’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14 윌리를 흠뻑했다는 조지나의 고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카멜라 아줌마의 반응으로 볼 때,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가 윌리를 흠친 것을 모르고 있었다.
- 15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멀어질수록 자신이 윌리를 흠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이후 내용으로 볼 때 ㉔와 같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지나는 잘못을 고백하러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 16 ㉔에서는 부끄러움, 죄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을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조지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냈다.
- 17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할 때 당당한 모습으로 말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연기해야 한다.
- 18 [A]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고 중요 소재를 중심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는 독자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상상하여 떠올리게 할 수 있다.
- 19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에게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지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 20 카멜라 아줌마가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조지나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21 영상으로 재구성할 때는 주인공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입장에서 영상상을 찍을 수 있다.
- 22 (나)는 영상 대본이다. 영상에서는 인물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대사와 연기, 얼굴 표정을 통해 드러나도록 한다.
- 23 (나)의 영상 대본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누어 (다)의 스토리보드로 작성한다. (다)는 이야기 전개에 따라 대사나 자

막, 배경 음악, 효과음 등 장면의 구성 내용을 세밀하게 작성해야만 촬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는 그림의 완성도에 주력하기보다는 각 장면을 어떻게 찍을지를 보여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해야 하며, 촬영 과정 중에도 스토리보드를 수정할 수 있다.

- 24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되는 소설과 달리, 영화는 카메라로 인물이나 배경 등 장면을 비추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따라서 영화는 소설보다 시각적 재미를 준다.

2 효과적인 의사소통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시험에 꼭 나오는 **기문 알맹이 분석**

18~19쪽

담화의 종류 및 담화의 구성 요소 ① 글, 달빛 도서관, 지훈, 자원봉사자, 점심, 복도
담화의 종류 및 담화의 구성 요소 ② 말, 지훈, 달빛 도서관, 날짜, 시간, 방과 후, 달빛 도서관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어울려, 부족, 걱정 / 의미 말하는 이의 의도 파악 도서관 / 책
문화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까닭 자신, 나 / 문화, 문화, 이해 세대 차이를 고려한 의사소통 세대, 배려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20~21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⑤ 05 ⑤ 06 ② 07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08 ④ 09 ④ 10 할머니는 '복스럽다'를 '모난 데가 없이 복이 있어 보여 보기 좋다는 뜻'으로 사용하였고, 민지는 '뚱뚱하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01 “안녕?”, “그래, 너도 안녕?”은 각각 하나의 발화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발화가 모여 이루어진 것을 담화라고 한다. 따라서 “안녕?”, “그래, 너도 안녕?”이 두 개의 담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공간과 같이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 등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03 나라는 병원이라는 장소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가 불편하세요?(어디가 아프

세요?)’라는 의사의 질문에 엉뚱하게 현재 자기가 불편한 점을 대답하고 있다.

- 04 이 담화에서 읽는 이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훈이와 친구들’이다.
- 05 이 담화의 참여자인 지훈이와 도서관 담당자는 말하는 이, 듣는 이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대화하고 있다.
- 06 (가)는 미용실에서 새로 한 머리 모양에 대해 묻고 있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좋아. 잘 어울려.’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 (나)는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권하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아니, 부족하지 않아.’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 07 같은 발화라도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08 남학생은 예빈이에게 시간이 있으면 책을 함께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의도로 ‘너, 시간 있어?’라고 말한 것이다.
- 09 지훈이는 ㉠을 ‘자신(지훈)의 엄마’라는 의미로 썼지만, 로버트는 이를 ‘지훈과 로버트의 엄마(㉡)’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당황한 것이다.
- 10 <보기>의 상황에서는 ‘복스럽다’라는 말을 할머니와 손녀가 각각 다른 의미로 생각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때 세대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2. 의미를 나누는 대화

시험에 꼭 나오는 **기문 알맹이 분석**

22~23쪽

이 소설 속 담화의 구성 요소 한희, 고개, 암탉, 도시문 선생님의 대화 태도 경청
‘달걀’의 의미 변화 여행비, 소중한 / 천대, 웃음거리
한희의 생각과 문 선생님의 반응 부자, 도시 / 달걀, 달걀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람직한 듣기·말하기 태도 고려, 구체적, 적극적
‘도시’와 ‘두메’에 대한 한희의 생각 변화 도시, 두메 / 가치 달걀을 달걀로 값는 방법의 의미 달걀, 도시 / 도시, 두메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24~25쪽

01 ③ 02 ⑤ 03 ③ 04 도시 여행을 가기 전 한희에게 ‘달걀’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으나, 도시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05 ② 06 ④

- 01 한희는 문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시험 대비편

- 02** 문 선생님은 한피의 말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질문하며 한피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03** 문 선생님은 한피의 이야기를 듣고 한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했을 것이다.
- 04** 이 글에 드러나는 한피의 생각을 여행을 가기 전과 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도시 여행 전에는 '달걀'이 한피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으나 여행 후에는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5** 문 선생님은 도시는 도시대로, 두메는 두메대로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 06** 이 글에서 문 선생님이 의견을 제안하면 한피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선생님도 다시 그 생각에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한 모의평가**

26~31쪽

- 01** ㉠: 맥락, ㉡: 말하는 이, ㉢: 내용, ㉣: 읽는 이 **02** ㉠ **03** ㉤
04 ㉠ **05**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 **06** ㉠ **07** ㉡: 상황(사회·문화적), ㉢: 사회·문화적(상황) **08** ㉢ **09** ㉢
10 ㉠ **11** ㉠: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비워 두자.
12 동일한 발화라고 해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상황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 **14** ㉢ **15** ㉠ **16** ㉠, ㉡ **17** ㉠ **18** ㉡ **19**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한피는 두메에는 도시 아이들이 볼 만한 새로운 것이 없으므로 도시 아이들을 굳이 두메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 **20** ㉡ **21** ㉡ **22** ㉡ **23**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 두려고요.

- 01**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내용이 있어야 하며,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있어야 한다.
- 02** 지훈이는 자원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기 위해 집에 가는 길에 달빛 도서관에 들러 도서관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03** 담화에는 말하는 이뿐만 아니라 듣는 이가 존재해야 한다. 산 정상에서 외치는 기쁨의 환호는 듣는 이를 염두에 둔 발화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담화라고 볼 수 없다.
- 04** <보기>의 (가)와 (나)는 동일한 발화라도 다른 상황에서 쓰이면 그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해야만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같은 의미를 다양한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보

기>와 거리가 멀다.

- 05** <보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길에서 넘어졌고, 그 모습을 본 남학생이 다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 남학생의 말에는 여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학생의 의도를 고려할 때 여학생의 '괜찮아.'에는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06** 도서관으로 많은 책을 옮겨야 하는 남학생의 상황을 고려할 때, '너, 시간 있어?'라는 남학생의 말에는 책을 함께 도서관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다. 따라서 예빈이의 대답으로는 ㉠이 적절하다.
- 07** 상황 맥락은 대화 참여자의 처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주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 이념, 공동체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08** 의사소통의 주제나 의도, 목적은 상황 맥락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 09** 지훈이가 자신의 엄마를 가리키며 한 말인 '우리 엄마'를 지훈이와 문화가 다른 로버트는 자신의 문화에 따라 '자신과 지훈의 엄마'라고 해석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훈이와 로버트는 서로의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0** 어른 세대의 말 문화와 청소년 세대의 말 문화가 달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11** 같은 발화라고 해도 장소라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12** 같은 발화라고 해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 13** (가)의 담화는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전화로 항의하고, 위층 사람은 아래층 사람의 항의 전화에 불쾌해하는 상황이다.
- 14** (가)에서 '나'는 위층 사람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대화하여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나'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만 하는 위층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화하였다면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 15** (다)를 통해 한피는 달걀을 모아 마련한 여행비로 도시 여행을 갔지만, 달걀을 천대하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16 (가)의 대화에서 문 선생님은 한씨의 취향을 고려하여 통닭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꺼내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으며, 한씨는 봄피를 나무라지 말라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 17 문 선생님은 한씨의 대화 태도를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 18 문 선생님은 ‘도시’와 ‘두메’는 각각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씨는 문명이 없는 ‘두메’는 ‘도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19 문 선생님과 한씨는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는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각 두메와 도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 20 문 선생님과 한씨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서 서로 의미를 공유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 만약 두 사람이 말하기에만 집중했다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 21 한씨가 도시의 좋은 점에 대해 말하면 문 선생님은 그것과 상대되는 두메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22 문 선생님은 도시의 동물원이나 천체 과학관도 가치가 있지만 진짜 자연이 있는 두메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므로, 도시나 문명의 이기에 주눅 들지 말고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23 한씨는 대화를 하는 내내 문 선생님의 생각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반박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한씨가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고 한씨가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게 된 것이다.

3 알기 쉽게 설명하기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32~33쪽

김광균의 〈외인촌〉 청각적, 분수 / 이해, 관심
공감각의 뜻 감각 / 정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 풍덩, 구도, 요소
김호득의 〈아〉 예 / 그림, 글자, 형태
〈아〉의 공감각적 표현 방법 비결, 명확 / 성대, 강렬한
김호득이 한글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 조형성, 소리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예술 작품 / 예술가, 인용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34~35쪽

01 ⑤ 02 ② 03 정의,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04 ④ 05 ⑤ 06 ②

- 01 ‘ㅇ’은 먹물이 질거나 얇은 부분이 보이지만, ‘ㅏ’는 붓에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다고 하였으므로, ‘ㅇ’과 ‘ㅏ’를 같은 방법으로 그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과 ㉡은 그림에서 소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방법을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 03 정의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을 말한다.
- 04 (다)에는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드러난다.
- 05 (가)는 인과를 통해 대륙붕 지형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나)는 대조를 통해 우리 종과 서양 종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 06 (다)에서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분석’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02. 설명하는 글 쓰기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36~37쪽

계획하기 예상 독자 / 주제, 설명
내용 선정하기 자료, 선정
내용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주제
내용 조직하기 구조, 개요, 설명 방법, 점검
표현하기 주제
고쳐쓰기 잘못된, 평가, 독자, 목적, 문단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38~39쪽

01 ④ 02 ③ 03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 발달해 있다는 내용은 ‘꽃 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라는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 04 ① 05 ③ 06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로’ 앞에 ‘후각 세포의’라는 말을 추가한다.

- 01 (가)는 계획하기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활동을 한다. 주제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내용 선정하기 과정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다.
- 02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시험 대비편

- 03 수집한 자료 중에서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만 선정해야 한다.
- 04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 각 문단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
- 05 <보기>는 글 전체의 수준에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점검하는 항목이다. 이를 고려하여 고쳐 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삭제한 ㉓이다.
- 06 후각 세포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콧구멍이 두 개라는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므로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수정한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모의평가**

40~43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06 예로 든 그림인 <풍덩>과 <아>를 살펴봄으로써 공감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07 ④ 08 ① 09 독자가 소음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10 ② 11 ① 12 ⑤ 13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코의 구조를 바깥 코와 코안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요소를 설명했다. 14 ③

- 01 이 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감각의 가치가 변화해 온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 02 <풍덩>에서 '풍덩' 소리를 고른 이유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 03 (가)에서는 공감각의 뜻을 밝히는 '정의'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기 적절한 소재는 '구전 문학의 개념'이다.
- 04 <보기>에서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 종과 서양 종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을 활용한 것은 한 글자와 두 글자의 차이점을 설명한 ㉔이다.
- 05 (나)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면 그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게 되므로 '풍덩' 소리에 집중하게 하려고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였다.
- 06 이 글에서는 공감각이 나타난 그림을 예로 들어 공감각에 대해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07 (라)에서 'ㅈ'는 붓에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어 '아!'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을 표현했다고 하였으며, 허공에 떠 있는 것은 'ㅈ'가 아닌 'ㅇ'이다.
- 08 (가)에서는 소음의 뜻과 소음 기준의 주관성을 각각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09 <보기>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정의'이다. (가)에서는 정의를 활용하여 소음의 뜻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10 <보기>에서 활용된 설명 방법은 '분류'이며, (나)에서도 소음을 종류에 따라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11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좋은 소음으로,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다(ㄴ). (마)에서 글쓴이는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두루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을 뿐 활용 분야와 연구가 축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ㄹ).
- 12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13 (나)에서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14 수정하기 전 글에서 문맥상 의미가 맞는 것은 '금방'이므로, 이를 '지금'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올바른 국어 생활

01. 올바른 발음과 표기

시험에 꼭 나오는 **자음 알맹이 분석**

44~45쪽

'ㄴ'의 발음 의자, 첫소리, 무니, 주이, 나에 마음
받침의 발음 ㅂ, 입
모음과 결합되었을 때 받침의 발음 음가, 대표음
겹받침의 발음 자음, 닥
모음과 결합되었을 때 겹받침의 발음 ㅅ, 갑씨
'되다'와 '돼다' 어, 돼
'안'과 '않-' 아니, 아니하
올바른 표기 낱다, 부처다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46~47쪽

01 ②,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② 06 ③ 07 ㉔: [알따] ㉕: [알배],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고,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하면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이다. 08 ④ 09 ③ 10 ① 11 ⑤ 12 ①

- 01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①, ③, ⑤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다.

- 02 모음 ‘ㄴ’은 이중 모음 [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ㄴ’의 경우에는 [니]로 발음한다.
- 0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ㄴ’ 경우에는 [니]로 발음해야 하므로, ‘흰머리’는 [히머리]로 발음한다.
- 04 받침에 쓰인 ‘ㄷ, ㅅ, ㅈ, ㅊ’은 대표음 [디]으로 발음한다. 하지만 ② ‘납’의 받침 ‘ㅂ’은 [ㅂ]으로 발음하므로 나머지와 다르다.
- 05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읽이’는 [이피]로, ‘읽을’은 [이플]로, ‘읽에’는 [이페]로 발음한다. 하지만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읽 아래’는 [이바래]로, ‘읽 위에서’는 [이뷔에서]로 발음한다.
- 06 겹받침 ‘ㄹ’과 ‘ㄺ’은 어말에서 모두 [ㄱ]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흙’은 [흑]으로, ‘넋’은 [넉]으로 발음한다.
- 07 표준 발음법에 따라,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로 발음하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08 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 09 ‘돼’는 ‘되어’의 준말이므로 ‘나는 이제 중학생이 돼.’는 올바른 표기이다.
- 10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며,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아직 밥을 아니 먹었다.’와 같이 풀어서 써 보면 정확한 표기가 가능하다.
- 11 ‘부치다’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또는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등의 뜻으로 쓰이며, ‘붙이다’는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진 ‘붙다’의 사동사이다. 따라서 ⑤는 ‘부쳐’라고 써야 한다.
- 12 ㉠ ‘자장면’과 ㉡ ‘칼국수’는 올바른 표기이다. ‘수제비’는 ‘수제비’로, ‘육계장’은 ‘육개장’으로, ‘김치찌개’는 ‘김치찌개’로 바꾸어야 한다.

02. 매체 바르게 읽기

시험에 꼭 나오는 **신문 알맹이 분석**

48~49쪽

도입 부분의 특징 모바일 페이지, 질문

표현의 특징 반복, 강조

사용한 자료와 효과 ① 사용 / 그림, 이해

사용한 자료와 효과 ② 피그레프, 현금, 비교 / 요약, 이해

사용한 자료와 효과 ③ 의견, 신뢰성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정복**

50~51쪽

01 ② 02 ④ 03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금 지급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알 수 있다. 04 ④ 05 ① 06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7 ‘현금 없는 사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이 화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한다.

- 01 (가)~(마)에서는 모바일 페이지의 보급으로 인해 현금 사용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 02 (라)에서는 모바일 페이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여 뉴스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03 도표는 수치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 보기 쉽고 내용을 비교하기 용이하다.
- 04 뉴스 보도에 쓰이는 자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출처가 분명한 것이어야 한다. 또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독자가 평소 자주 접하는 자료인지는 적절성 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다.
- 05 (가)에서는 스웨덴이 현금 없는 사회의 목표 시한을 2030년으로 정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통해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06 ㉠에서는 모바일 페이지와 같은 결제 방법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말을 덧붙인다면 뉴스 보도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07 이 뉴스에서는 모바일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짚어 보고, 현금 없는 사회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내하고 있다.



시험 대비편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모의평가**

52~56 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6 ④ 07 '물이' 되었다로 쓸 수 있으므로 '뒀다'가 아니라 '되었다'를 줄인 '뒀다'로 써야 한다. 08 ④ 0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⑤ 15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6 ② 17 ③ 18 ② 19 ③ 20 ① 21 제목을 비슷한 구절로 서로 짝을 지어 보여 주어서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요약하여 전달하였다.

- 01 '띄어쓰기', '흰머리'의 '니'는 모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어 [니]로 발음한다. '주의'는 [주의/주이]로, '의미'는 [의미]로, '그의 마음'은 [그의 마음/그에 마음]으로 발음한다.
- 02 받침 '시'와 '트'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치]으로 발음한다.
- 03 겹받침 'ㄱ', 'ㄴ',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겹받침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ㄹ, ㅁ, ㅂ]으로 발음한다.
- 04 '겉옷'은 받침 뒤에 'ㅏ, ㅑ, ㅓ, ㅕ'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연결된 경우로, [거돋]으로 발음한다.
- 05 ②~⑤의 밑줄 친 부분의 받침은 모두 [비]으로 발음하지만, ①의 '뒀'은 자음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 06 <보기>의 '닭이', '앉아서', '넓이'의 경우 각각 겹받침인 'ㄹ', 'ㅌ', 'ㅍ'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여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것이다.
- 07 '되-' 뒤에 '-어'가 오면 '돼'로 줄여 쓸 수 있다. 따라서 '뒀다'가 아니라 '되었다'를 줄인 '뒀다'로 써야 한다.
- 08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이를 고려하면, ㉠, ㉡에는 '안'이, ㉢, ㉣에는 '않-'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의 '낳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④이며, 나머지는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낫다'를 사용해야 한다.
- 10 <보기>와 ②에는 '붙이다'가 들어간다.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 11 '안팎의'에서 '팍'의 쌍받침 'ㅍ'은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의'와 결합되어 원래의 음인 [ㅍ]이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따라서 [안파끼]로 발음해야 한다. 또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안파께]로도 발음할 수 있다.

- 12 '받아들이다'가 맞는 표기이므로 '받아들이기를'이라고 써야 한다.
- 13 (가), (나)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를 통해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나)는 모바일 페이지 이용액이 만 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으므로 '모바일 페이지'의 하루 이용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⑤의 자료가 적절하다.
- 15 (가)에서는 진행자가 말하는 주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라)에서도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여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막은 뉴스를 보는 시청자가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16 (라)~(마)에 전기 자전거 운행이 합법화됨에 따라 '안전 의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17 <보기>의 자료는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때는 '차'로, 자전거를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분류됨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18 이 글에는 전기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②에서 윤진이가 언급한 자료를 통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19 (가)는 텔레비전 뉴스, (나)는 인터넷 기사이다. 이러한 매체를 읽을 때에는 매체에 담긴 내용이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에 적절한지, 자료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며 읽는다. 하지만 매체에 담긴 생산자의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파악하는 것은 매체를 읽을 때 고려할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 20 이 글에서는 모바일 페이지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21 ㉠에서는 '타고 가면', '끌고 가면'과 같이 비슷한 구절을 짝을 지어 보여 주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